

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	보 도 자 료	배 포	2021. 5. 13.(목)
담 당 과		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	
과 장		최종동 (☎043-719-2051)	
사무관		심 연 (☎043-719-2054)	
 식품의약품안전처			

식약처, 치킨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실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·안전관리를 위해 치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.
-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족발·보쌈 배달음식점 집중점검에 이어 실시되는 것으로 치킨 배달음식점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좁아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1,227 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.
- 주요 점검 내용은 ▲위생적 취급기준(특히, 위생모·마스크 착용 등) 준수 ▲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또는 사용 ▲음식물 재사용 행위 ▲냉장·냉동 시설 온도 관리 등입니다.
- 참고로 지난해 배달음식점 특별점검 결과, 위반 내용은 ▲건강진단 미실시 ▲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▲시설기준 위반 ▲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·사용 순으로 많았습니다.
- ※ 배달음식점 영업자의 자율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율 위생점검 매뉴얼을 ‘식품안전나라’ 누리집(www.foodsafetykorea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(5.14.)
-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배달음식점 영업자의 위생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, 올해 안으로 피자, 분식 등 주요 인기 배달 음식점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